

2024년 충남지역 통합 취업 선호도 (직업계고·대학교) 조사 보고서

요약본

2024. 12

통계 이용 및 해석상의 유의사항

- 본 보고서는 충남지역 직업계고 2학년 학생 직업계고 교사, 대학(전문대 포함)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 성향,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『충남지역 직업계고 취업 선호도 조사(학생), 취업 인식도 조사(교사), 대학교 취업 선호도 조사』의 분석결과를 수록한 보고서임
- 본 조사 중 직업계고 학생 및 교사 관련 조사의 경우, 응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어 응답 표본의 계열, 권역 관련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
- 조사 결과는 편의성을 위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제시하기 때문에, 세부 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
 - ※ 특히 상업계 표본 비중이 높으므로, 데이터 결과 확인 시 해석에 유의해야 함

PART

요약

요약문

1. 직업계고

- 충남지역에는 38개 직업계고, 107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, 현재 10,647명이 직업계고에 재학 중이며, 천안시와 서산시 등에 30%가 소재해 있음
- 현재 전국적으로 직업계고 학과개편(재구조화)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, 정부에서는 신산업·신기술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2024년 반도체·인공지능·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학과가 개편되고 있음
 - 2018~2022년 진행된 학과개편 현황을 살펴보면, 2개 이상의 학과가 융합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데, 올해 당진에 선정된 2개 학과 또한 이러한 융합 학과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
- 충남지역에 소재한 직업계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후 진로가 학과(전공)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답하고 있으나, 상업계열에서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20.8%로 나타나, 상업계열 학과들에 대해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
 - 상업계열 직업계고 학생들은 예술 미디어 분야, 마케팅과 관련하여 직업 흥미도가 상대적으로 높아, 크리에이티브 디렉터,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융합 전공이 필요함
- 충남소재 직업계고 재학생 중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비중은 2024년 49.4%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
 - 2024년 기준 충남의 직업계고 재학생 중 29.5%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, 이 비중 또한 최근 3개년간 점차 줄어들고 있어, 아직 진로 계획을 정하지 않은 학생들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
 - 직업계고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고졸의 사회적 인식(44.3%), 고졸-대졸 임금 차이(40.5%)를 응답하여 현실적으로 고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임금

격차에 대한 직업계고 학생들의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

[표 1] 직업계고 취업의향

(단위 : %)

연 도	2022년	2023년	2024년
취업 의향	50.9	50.6	49.4
대학 진학	36.3	33.6	29.5

- 충남지역의 직업계고 학생의 76.7%는 현재 취업 의향이 있는 상태이나, 2024년 기준 충남지역 직업계고 취업률은 58.4%의 수준으로 더 높아질 여지가 있는 상황임
 - 충남 지역에서 마이스터고는 취업률이 직업계고 유형 중 상대적으로 높게(79.2%) 나타나는데, 마이스터고는 '장인 양성'을 주제로 하여 전문성이 뛰어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
 - 충남 직업계고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이유로 전문성(전문지식)을 갖추기 위해서(72.5%) 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, 이러한 마이스터고의 확대 혹은 마이스터고와 유사한 인력양성 방안을 제시한다면,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이 직업계고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 취업률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
-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중점적으로 준비한 부분은 자격증 취득이 87.0%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, 그럼에도 취업 준비 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로 자격증 취득의 어려움(56.1%)을 제시하여,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, 응시료 지원 등의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이 시급함
- 충남 직업계고 학생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연봉 등의 임금이 62.7%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, 희망하는 월급 수준은 최소 262.2만원에서 희망 313.1만원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
 - 충남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지도로는 45.1%가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는데, 취업 시 67.9%가 충남 지역을 선호하지만,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(90.4%) 부정확하다(68.8%)는 응답이 주로 있어 충남 기업과 직업계고 학생들을 연결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

관련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

- 직업계고 학생들은 충남 소재 기업 취업을 위해서 고졸채용 확대를 가장 많이 바라고 있어(68.4%) 충남 중소기업들이 고졸을 채용할 경우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정부정책이 필요함
-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직업계고는 65.8%로 다수가 참가하였으며 학교 정기수업 외 직업 관련 교육은 53.9%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
 - 그중 진로 취업상담의 만족도 항목이 5점 평균 3.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, 향후 학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현장실습을 가장 선호(45.1%)하는 것으로 나타나, 향후 현장실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추가되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
- 학교 수업 외 직업훈련에 참여한 직업계고 학생들은 주로 직업전문학교 등(41.5%)에서 경영·회계·사무(27.4%) 관련 교육훈련을 진행하였는데, 향후 관련 교육 수강 계획이 있는 경우는 73.5%로 나타나 향후 학교 수업 외 직업훈련에 대한 공급 확충이 필요할 것임
 - 경영·회계·사무(23.5%)와 전기·전자(19.1%), 문화·예술·디자인·방송(18.0%) 순으로 선호도가 높아,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비중을 확대한다면 수요에 맞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

2. 직업계고 교사

-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, 직업계고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구조개편을 이루고 있고, 학과재편을 통해 다양한 신산업의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새로운 학과로 융합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음
- 충남지역의 직업계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재 소속된 학과의 구성과 교과과정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 결과, 교육과정이 현재 산업변화에 맞게 적용하여 운영 중이라는 응답이 5점 평균 3.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, 교육과정이 산업계 인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 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5점 평균 3.61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남
 - 충남 지역에서 학과 개편을 할 경우, 이러한 산업계 인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이 진행되어야 하며, 향후 심층 조사 등을 통하여 이러한 인력 수요를 반영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임
 - 마찬가지로, 학과 개편을 실시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산업계 요구 반영이 84.2%로 가장 높게 나타나, 산업계에서 직업계고 학생을 채용하기 위해 주로 확인하는 역량, 필요교육, 자격과정 등을 토대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
- 현재 소속된 학교에서 학과 재구조화(학과개편)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으로는 개설 과목에 대한 지도가 가능한 교사를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이 50.0%로 나타나, 학과 개편 선정 시 기존 교사 인력이 개편 학과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재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, 재교육의 한계가 있을 경우 외부 교사 채용 계획 등 다양한 방면에서 충분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함
- 충남지역의 직업계고 교사들은 직업계고의 교육 방향으로 학생들의 진로(진학, 취업) 준비를 위한 과정(86.8%)이라고 응답함
 - 학생들의 진로 희망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, 충남지역에서는 학생들의 구직 희망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

- 현재 직업계고 학생들은 전체 충남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5점 평균 3.42점, 충남 중소기업은 5점 평균 3.26점으로 긍정적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음
 -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임금수준과 복리후생(회사복지)이 기대 수준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이는 앞서 설명한 직업계고 취업선호도 조사에서도 직업계고 학생의 주요 취업 시 고려사항으로 임금수준과 복리후생을 고를 정도로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음
 - 이에 따라 충남 소재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임금지원, 복리후생 확대와 관련한 지원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충남 소재의 중소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함
 - 현재 직업계고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충남 지역 내의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해 우수 기업들을 발굴하고 컨택(84.2%)하고 있는데,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 및 지자체가 연계하여 우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졸 채용을 확대할 경우 임금 지원이나 복리후생 지원 등을 하여 기업-교사-직업계고 학생들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
- 직업계고에서는 현재 다양한 기업들과 산학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, 학생들의 현장성 제고를 위해 산학협력 운영 시 현장실습 파견(76.3%)과 관련한 운영 방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함
 - 하지만 현재 지역 내 기업이 산학협력을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(71.1%)하다보니 지역 내 학교와 협력할 산업체가 부족(68.4%)하여 산학협력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
 - 이에 따라, 지역 내 우수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산학협력과 직업계고 취업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

3. 대학교

- 충남지역에는 26개 대학교, 1,044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, 2022년 기준 33,654명이 졸업하였으며, 천안시에만 26개 중 8개 대학이 존재함
- 현재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 사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, 정부에서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지자체 주도를 통한 지역-대학 동반성장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
- 충남지역에 소재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 진로와 학과(전공)의 일치도를 조사한 결과, 5점 평균 3.53점으로 대체로 일치한다고 답하고 있음
 - 한편, 인문사회계열의 대학생들이 진로와 전공이 일치한다는 응답은 33.0%에 불과하여, 해당 계열의 진로 및 전공 연계성과 관련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
- 충남소재 대학교 재학생 중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비중은 2024년 73.2%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
 - 2024년 기준 충남의 대학교 재학생 중 4.2%가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, 이 비중 또한 전년 대비 50% 이상 줄어들어, 아직 진로 계획을 정하지 않은 학생들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
 - 대학교 학생들이 대학원을 가고자 하는 이유로는 특정 직종(연구개발직, 전문직 등)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(61.9%), 전문지식(전문성)을 갖추기 위해(57.1%)로 나타나 석사 이상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으로의 취업 희망이 높은 것으로 보여짐

[표 2] 대학교 취업의향

(단위 : %)

연 도	2022년	2023년	2024년
취업 의향	90.5	85.0	73.2
대학원 진학	7.8	9.2	4.2

- 충남지역의 대학교 학생의 82.0%는 현재 취업 의향이 있는 상태이나, 2024년 기준

충남지역 대학생 취업률은 64.6%의 수준으로 더 높아질 여지가 있는 상황임

- 충남 지역에서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바이오캠퍼스 등의 기능대학은 취업률이 대학교 유형 중 상대적으로 높게(86.5%) 나타나는데, 기능대학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
- 충남 대학생 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은 직종으로 전문직(46.2%), 기술직(40.4%) 등과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, 이러한 기능대학과 유사한 인력양성 방안을 제시한다면,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이 대학교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 취업률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
- 대학교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중점적으로 준비한 부분은 자격증 취득이 66.2%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취업 준비에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에 대한 어려움(59.2%)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어,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소모되는 비용 등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이 시급함
- 한편, 예체능 계열에서는 인턴, 현장실습 등의 직무경험에 대한 준비(75.0%)를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, 직무 경험을 높여줄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하며, 공학계열의 경우, 직무 및 직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(55.0%)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, 현업에서 근무하는 재직자들의 멘토링 등을 통해 직무·직업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- 충남 대학생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직장 분위기가 33.4%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, 정규직 선호도가 32.0%로 유사한 중요도로 나타남
- 취업을 희망하는 회사 유형으로는 국내 중견기업이 59.4%로 가장 높았는데, 대다수가 급여(보수) 요인(35.1%)과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(23.6%), 고용 안정(22.0%) 등의 요인이 대다수로 나타남
- 대학생들의 희망 월급 수준은 최저 252.7만원~희망 283.8만원 수준으로 나타나, 급여도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 있지만, 급여보다는 복리후생 확대를 통한 직장 분위기 조성

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

- 한편, 충남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지도로는 34.6%가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는데, 취업 시 대전(60.4%), 경기·인천(58.8%) 등으로 충남은 39.0%에 불과하여 충남 소재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남
 - 충남 소재 기업에 취업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로는 임금수준 및 복리후생(회사복지)이 기대에 못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63.3%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, 이후로 마음에 드는 회사가 충남에 없어서 등의 응답으로 미루어보아, 관련 임금수준과 복리후생(회사복지) 향상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충남 인재들의 유출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음
- 대학생들은 충남 소재 기업 취업을 위해서 충남 소재 기업 취업 시 혜택(고용장려금, 정주비용 지원 등)을 제공받기를 가장 많이 바라고 있어(51.4%) 충남 중소기업들이 지역 대학생을 채용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, 충남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전용 숙소사 운영 등 정주요건에 대한 지원책을 제공하여 충남 대학생들이 지속해서 충남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시급함
-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대학생은 33.2%가 참가하였으며 학교 정기수업 외 직업 관련 교육은 25.6%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
 - 그중 진로 취업 상담의 만족도 항목이 5점 평균 3.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, 향후 학교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취업처 정보 제공을 가장 선호(43.1%)하는 것으로 나타나, 취업 상담을 통해 취업 연계 및 알선 등의 고용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
- 학교 수업 외 직업훈련에 참여한 직업계고 학생들은 주로 직업전문학교 등(46.1%)에서 보건·의료(31.3%) 관련 교육훈련을 진행하였는데, 향후 관련 교육 수강 계획이 있는 경우는 36.2%로 나타나 현재 진행 중인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어떤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
 - 보건·의료(26.0%), 전기·전자(15.5%), 경영·회계·사무(13.3%) 순으로 선호도가 높아,

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비중을 확대한다면 수요에 맞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

4. 종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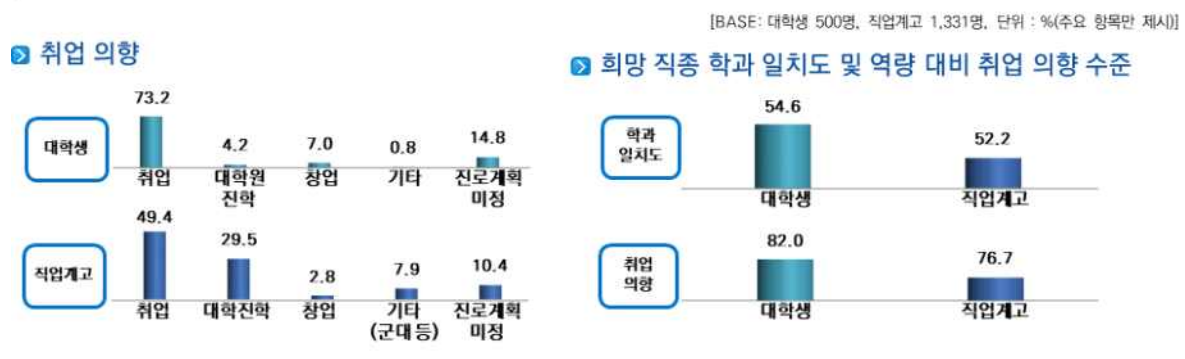
- 충남에 위치한 직업계고는 38개, 대학교는 26개로 각 취업률은 58.4%, 64.6% 수준으로 나타남

[표 3] 직업계고 및 대학교 현황

구 분	학교 수	학과 수	취업률
직업계고	38개	107개	58.4%(2023기준)
대학교	26개	1,044개	64.6%(2022기준)

- 직업계고와 대학교 학생들은 대체로 전공과 진로가 일치한다고 응답하였으나, 상업 계열의 직업계고와 일부 인문사회 대학생들은 진로 불일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
 - 직업계고 상업계열에 대해서는 예술 미디어 분야, 마케팅과 관련하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,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융합 전공이 필요하며, 대학생 인문사회계열의 진로 및 전공 연계성과 관련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

[그림 1] 충남지역 직업계고 및 대학생 취업의향, 학과 일치도 및 취업의향 수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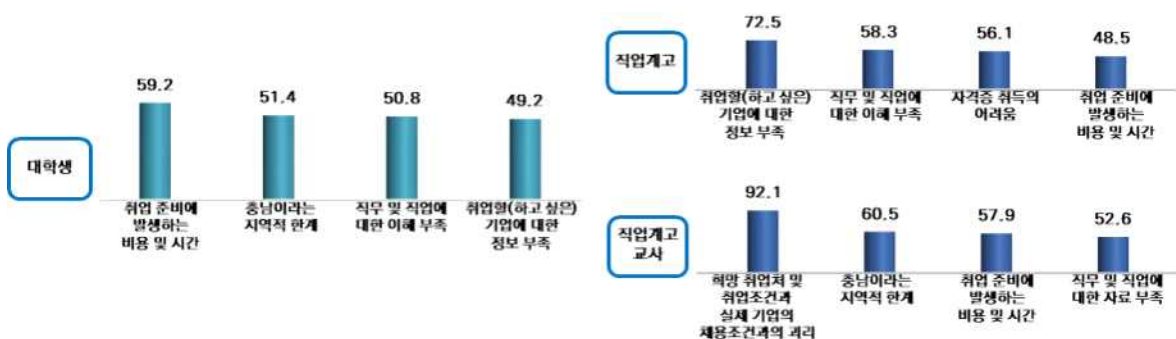
- 취업 및 진로에 대한 문제점으로, 직업계고는 기업 정보 부족(72.5%), 대학생은 취업 준비에 발생하는 비용 및 시간 부족(59.2%), 직업계고 교사는 희망 취업처 및 취업 조건과 실제 기업의 채용조건과의 괴리(92.1%)를 응답하고 있음

- 이에 충남 기업들이 직업계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고졸채용 확대와 관련한 중소기업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며, 충남에 소재한 우수기업들을 발굴하고 대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여 산학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,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진로상담과 관련하여 고용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면 프로그램 참여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남

[그림 2] 충남지역 직업계고·직업계고 교사·대학생 취업 애로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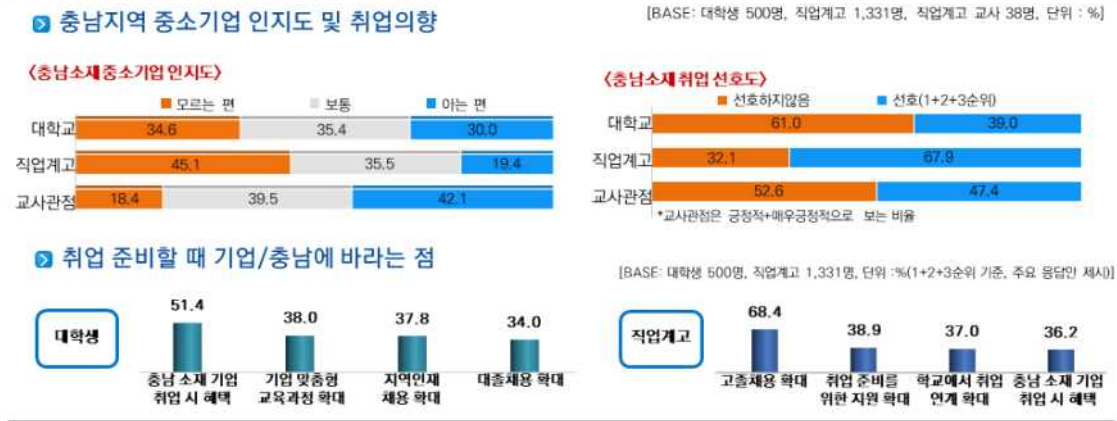
[BASE: 대학생 500명, 직업계고 1,331명, 직업계고 교사 38명, 단위 : %(주요 항목만 제시)]

▶ 취업 준비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(중복응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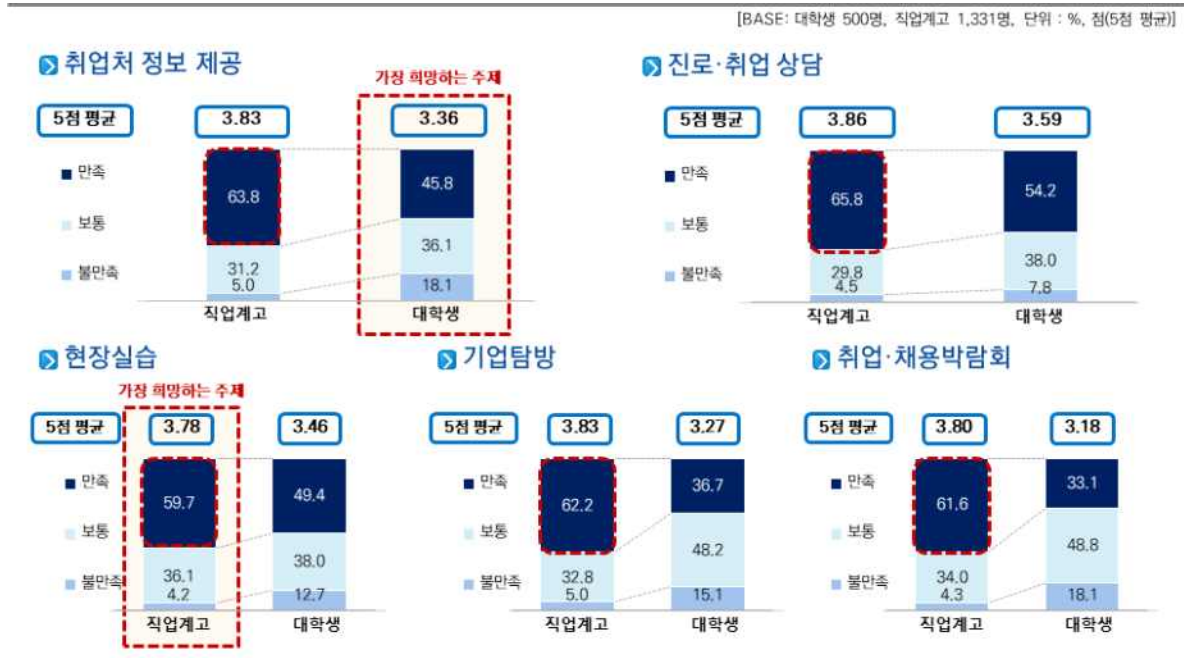
- 충남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지도는, 직업계고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더 낮은 편으로 나타나며, 취업 선호도는 직업계고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짐
- 충남 소재 기업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, 고졸과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취업자에게도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원 정책 제공이 필요함

[그림 3] 충남지역 중소기업 인지도 및 취업 선호도, 지원 필요사항



- 학교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로는 직업계고와 대학생 모두 진로·취업 상담 분야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
 - 한편, 가장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직업계고는 현장실습, 대학생은 취업처 정보 제공으로 나타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설 시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확대가 필요함

[그림 4] 학교 취업지원 프로그램 만족도



- 학교 수업 외 제공되는 직업교육은 직업계고는 53.9%가 경험이 있으나, 대학생은 25.6%만이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한편, 향후 직업교육 계획은 직업계고는 73.5%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나, 대학생은 36.2%에 불과하여,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직업교육에 대해 검토하여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

[그림 5] 직업계고와 대학生の 학교수업 외 직업교육



- 학과 개편과 관련하여서는 담당 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44.7%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, 산업계 인력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
- 학과 개편 시 개설 과목 지도교사 확보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어, 학과 개편 선정 시 기존 교사 인력의 충분한 재교육과 개편 학과 전담 교사 확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충분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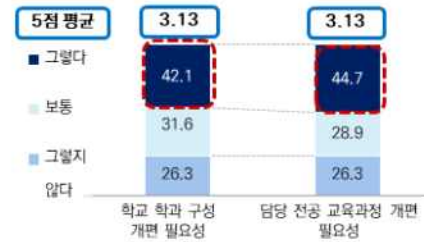
[그림 6] 직업계고 교사의 교육과정 개편 필요성

[BASE: 직업계고 교사 38명, 단위 : %, 칭(5점 평균)]

▶ 담당 교육과정 평가



▶ 개편 필요성 평가



▶ 학과 재구조화(학과개편) 실시 시 가장 큰 애로사항(중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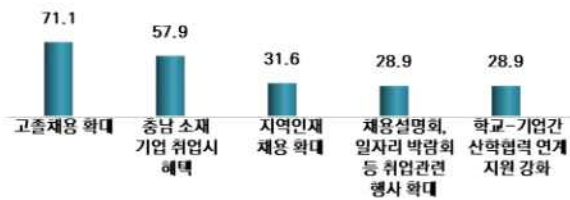
- 학생들이 충남지역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교사와 학생 모두 고졸 채용 확대를 제시하여, 실제 기업에서 고졸 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짐
- 또한, 직업계고 학생들이 원하는 현장실습과 관련된 부분을 가장 많이 진행할 수 있는 산학협력 연계 기업이 중요한데, 현재 산학협력 추진 시 유인책 부족과 산업체 부족의 애로사항이 있음
-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과 직업계고를 연결하여 산학협력을 강화하고, 이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함
 - 산학협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·지자체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비용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마련하여,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
 - 연계된 중소기업은 직업계고 학생들을 현장실습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, 학생들은 이를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함

- 실습 후 학생을 채용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임금지원, 복리후생과 같은 혜택을 지원하여, 고졸 취업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,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도 취업 유인을 제공하여 취업률을 제고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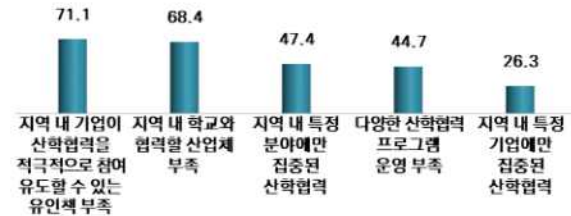
[그림 7] 학생 취업 및 산학협력

[BASE: 직업계고 교사 38명, 단위 : %(중복응답), 주요항목만 제시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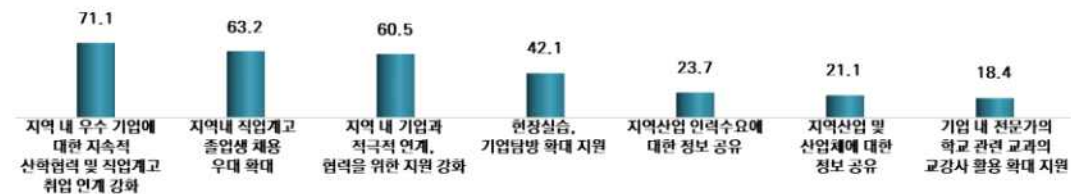
▶ 학생들이 충남지역 취업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



▶ 기업 산학협력 추진 시 가장 큰 애로사항



▶ 원활한 산학협력을 위해 교육청 및 인적자원 기관에서 지원 필요 부분



- 이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, 실무 경험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향후 취업률 향상에 대한 이점을 가질 수 있으며, 중소기업에서는 적합한 인재를 사전 육성하고, 기업 내 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, 기업과 직업계고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재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예상됨